

대학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강의법 원리와 수업운영 모형 탐색

최 은 수*

차 례

- I. 서론
- II. 강의의 의미와 강의자 역할
- III. 강의 계획을 위한 학습자 파악과 강의 목표 제시
- IV. 효과적인 교수 강의법의 10가지 전략
- V. 효과적인 대학 수업운영 모형 예시
- VI. 결 론

I. 서론

대학의 역할은 봉사, 연구, 교육에 두고 있다(Shoemaker, 1998). 대학의 역할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은 대부분 강의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의 강의는 다양한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기제이고 대학의 강의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학 강의실 안팎에서 높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에 남아 있을 뿐이라며 불평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지불한 등록금의 금액과 수업을 통한 이익을 대비하며 원가계산에 한창이다. 교수는 교수대로 자신의 강의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왜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일부 교수들은 이러한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정환, 1992).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하는 요인으로 담당교수의 자질과 수업운영, 그리고 학습 집단의 규모를 손꼽을 수 있다. 우선 강의에 임하는 담당교수들의 수업준비도와 강의법, 그리고 과목에 대한 전공 실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업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피드백 등이 문제가 되며, 특히 학습 집단의 규모는 우리나라 대학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 연구자(박성익, 1997)에 따르면, 집단 크기 유형에 따라 학생수가 1-3명일 경우 개인지도, 4-14명일 경우 토의집단, 15-32명일 경우 대학 수업 집단, 32명 이상일 경우 청중을 위한 강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수업 크기를 30명 이하로 줄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학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와 수업운영에 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 담당교수의 수업 준비도와 강의법, 그리고 수업 운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강의법 원리와 수업운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강의의 의미와 강의자 역할

강의는 “강의자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변영계와 김영환, 1996).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의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통해 학습자가 지식을 전달받았는가는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켈버(Kember, 1997)는 교수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내용전달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자인 필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보아도 아주 훌륭한 학자의 강의에 들어가 보면 실망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외국 대

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라는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교수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중얼중얼 함으로써 학생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강의의 중요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필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강의는 하나의 “종합적인 공연 예술”이다. 교육학, 특히 교수-학습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일부는 강의를 기술 혹은 기교로 본다(Malout, 1994; Teeters, 2001). 그러나 필자에게 강의는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를 넘어선 종합적인 공연 예술이다(최은수, 2003). 마치 연극을 무대에서 상연할 때를 상정하면 무대 뒤편에는 감독이 있고 무대 위에는 연극배우가 올라와 공연할 때에 여러 가지 각본에 의해 종합적인 계획 하에 공연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행해지는 것이 강의이다. 음악회나 연극 공연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된다. 대학 강의 자체도 교수와 학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공연 예술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연예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든지 음악회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 주체자인, 연극에서는 연극배우이고 음악에서는 가수이고 강의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강의자라고 할 수 있다. 강의자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의의 효과가 50%, 100%, 혹은 0%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강의계획을 위한 학습자 파악과 강의 목표 제시

1. 학습자 파악

교수가 강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과연 어느 소속인가, 학과가 어디인가, 남학생이 많은가, 여학생이 많은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 등 학생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미

리 파악하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학습자가 시각적인가 언어적인가 하는 것이다. 시각적인 스타일은 여러 가지 도형, 사진, 혹은 도표를 이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용이한 스타일이다. 반대로 학습자가 언어적인 스타일이라면 칠판에 글을 쓴다던지 교과서를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유형이다. 더불어 학습자가 적극적인가 혹은 수동적인 스타일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수동적이다.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시험 보는 유형이다. 반면에 적극적인 학습자의 경우는 그룹 토의와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 순차적인가 혹은 총체적인가도 문제이다. 순차적인 유형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습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총체적인 학습 유형의 학생들은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경향을 띤다(변영계와 김영환1996). 결국은 강의를 하기 전에 학습자의 다양성과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강의 목표의 제시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면 학습은 촉진되고,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나 모범 작품을 관찰하면 학습은 더욱더 촉진된다. 학습동기의 유발을 위해 학습자가 수업목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거나, 수업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학습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학습동기화는 극대화된다(Lefrancois, 1991).

IV. 효과적인 교수 강의법의 10가지 전략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이 글

에서는 필자의 강의 경험과 교수 강의법에 관한 관계 문헌을 기초로 하여 10가지로 정리 기술하고자 한다.

▶ 전략 1 : 강의자는 자신감을 갖고 강의를 재미있게 구성하라.

모든 강의자는 강의에 임할 때에 공통적으로 다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문제는 강의자가 우선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방법론이다.

첫째는 자아성취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일이다. 강의에 임하기 전에 내가 이 강의를 훌륭하게 해내겠다. 강의를 훌륭하게 수행해 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만일 이러한 자아 성취 예언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강의자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늘상, 농구선수들은 시험 시에 슛을 하는 순간 볼이 들어갈 경우를 미리 생각한다. 볼이 들어가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볼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 백발백중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슛을 하는 것이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다. 공을 치는 순간 직전에 공이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 결국,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난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리 속에 미리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무대공포증(stage fright)을 없애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에 상관없이 무대에 서게 되면 떨리게끔 되어 있다. 강의자 역시 강의 경험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은퇴를 바로 앞 둔 교수들조차도 강단에 서게 되면 마음이 설레고 약간씩은 떨리게 된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약간의 우월의식이 필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건방지고 오만한 마음은 금물이지만, 그러나 약간은 청중이나 학습자들이 본인 보다는 지식이 떨어져서 나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

랍직하다. 사실 강의자는 아는 게 별로 없어도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강단에 섰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약간의 우월의식은 강의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이다.

셋째는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모든 강의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딱딱하고 이론 중심적인 내용을 전달할수록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재미있게 하려면 강의자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머 센스가 있어야 한다. 유머센스는 선천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것은 후천적으로는 잘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머감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들을 개발해야한다. 그렇다면, 후천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다. 학습자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의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피부에 와 닿는 얘기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관심과 동기 유발이 재미있는 강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 획득이다. 아무리 재미있게 얘기한다 해도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곧 실망하게 되며 강의가 학습자의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평상시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보를 불러 넣어줘야 한다.

▶전략 2 : 강의를 쉽고 명쾌하게 하라.

강의를 쉽고 명쾌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강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강의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처음 5분간은 듣다가도 5분 이후에는 학습자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잠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쉽고 명쾌하게 강의를 할 것인가?

첫째로 강의자는 자기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반대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은 절대로 강의하지 말며, 자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강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대하여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 두어야 한다.

둘째로 강의자는 알고 있는 지식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결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자는 정확하게 알고서 명쾌하게 전달해야만 한다. 어떤 강의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가능하면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지고 강의한다. 학생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겨우 30~40%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강의자는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쾌감과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현학적인 강의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반면에 가장 좋은 강의는 강의자가 전달하는 강의를 학생들이 100%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로 소위 '여백론'에 충실해야 한다. 여백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강의 내용을 10가지를 준비하였으면 10가지 다 전달하지 않고 그 중에서 7 내지 8가지만 전달하고 2 내지 3가지는 여백으로 남겨 두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강의자일수록 자신이 준비한 것을 단 시간 내에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강의자도 힘들고 학생들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강의에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강의를 할 때에는 사전 준비는 많이 하되 주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여유 있게 80%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강의자와 학습자간에 서로 편하게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다.

▶전략 3 : 강의를 적극적이고도 변화 있게 시간을 관리하며 진행하라.

적극적인 강의를 하려면 강의자는 우선 그 강의를 스스로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간 때우는 듯한 기분으로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다든지 하면 강의는 이미 실패작이 된다. 시시때때로 시계를 보면 학습자도 마음이 불안해진다. 강의자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강의자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강의를 즐기고 있는지 아는지 학습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다. 강의자가 그 강의를 즐기지 않는다면 학습자도 즐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강의는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다. 기운이 축 쳐져서 진행되는 강의는 학생들까지도 힘이 빠지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강의자의 열의에 찬 강의는 학생들이 분위기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끝날 때에는 오히려 아쉬운 느낌까지 들게 한다. 열의가 있는 교수의 태도는 생동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으며, 메시지가 확실하게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강의내용까지 확신을 갖게 한다.

강의자는 지루한 강의를 피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의 크기, 말하는 속도의 적절성, 발음, 목소리 변화 등을 살펴야 한다. 강의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강의실이 찌렁찌렁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강의자의 적절한 말의 속도는 학생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준다. 효과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 음의 높고 낮음, 속도의 빠르고 느림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는 교수를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 열정은 학생들에게 쉽게 파급된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한 연구(Mehrabian, 1972)에 따르면, 몸동작이 의사 전달에 미치는 효과는 50% 이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 동안 교수가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행동은 강의를 무성의하게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무의식적 습관에서 비롯되거나 별 이유 없이 반복되는 몸동작은 줄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말할 때에 인상 찌푸리기, 샷대질하기, 천장 쳐다보기, 바닥 내려보기,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동전 만지작거리기 등은 피해야 할 몸 동작이다. 반면에 강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나 손동작, 서 있는 자리를 서서히 움직여 주는 것, 학생들에게 시선을 골고루 제공하는 것 등을 의도적이면서도 적절히, 그리고 자연스럽고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몸동작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변화와 함께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강의자는 주어진 시간이 10시 50분까지만 데 자신의 열정이 지나쳐서 쉬는 시간까지 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강의자는 스스로 생각에 10분간 강의를 더 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강의자의 열정에 감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생각은 자기 환상일 뿐이다. 강의자는 강의에의 열정이 지나쳐서 주어진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라면 1-2분전에 마치는 것이 현명하다. 12분 일찍 끝나치면, 그 시간만큼 강의에 대한 아쉬움과 여유가 생기고 다음 시간 강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아주 딱딱한 내용의 재미없는 강의라면 미리 끝내는 것이 학습자가 강의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방책이다.

▶전략 4 :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라.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를 느낌으로서 알게 된다. 교수와 학생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교수가 자기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알게 된다. 그렇다면 교수의 관심과 애정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학생에 대한 교수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분석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 종합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 학생들이 지적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등 학습자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

교수와 학생 간에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는 것은 이심전심. 강의자가 갖고 있는 열정과 애정이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된다. 마음이 맞아야만 지식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교수는 또한 강의에서 순발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은 마음이 착하고 얌전한 반면에, 다른 학생은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강의실에서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수는 당황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학생의 예상치 못한 당돌한 질문에 대하여 교수는 곧이곧대로 얘기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게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이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나 여러 가지로 수업에 방해할 때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칭찬은 특별히 어린 학생일수록 효과적이다. 아부성 발언이 결코 아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장점들을 들춰내어 칭찬하는 게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시기적절한 칭찬은 질책, 책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약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등 자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전략 5 : 강의자와 학습자와는 상호 인격적 대화가 되도록 하라.

강의자와 학습자간에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수, 선생님, 강의자는 상위 위치에 있고 학습자는 하위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라면 그 강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수와 학생간의 평등한 상호관계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강의자는 강의자로서 자신의 이미지(self-image)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자가 자기 자신을 강의를 할 때 어떤 이미지로 그려낼 것인가? 군대의 장군, 회사의 CEO, 혹은 도움을 주는 조언자로 정립할 것인가? 만약 자기 스스로 자아 이미지를 장군이라든지 CEO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다면, 자신은 학습자 위에서 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적인 강의 체제에서는 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강의자가 스스로 학생들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는 조력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 평등하면서도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로 교수와 학생 간에 상생(win-win)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생의 관계는 양편이 모두 승리하는 관계, 즉 강의자도 이기고 학습자도 이기는 관계 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와 강의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끝내고 강의자는 강의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강의자는 강의를 통해 설정한 학습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파악하고 강의를 통해 실현하도록 교안을 작성하여 강의를 학습자에 맞게 하고, 학습자는 자신이 그 강의에 참여한 학습목적에 달성하도록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전략 6 :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라.

교육학자들의 학습과 기억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읽기만 하면 10%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데 반하여, 보기와 말할 때에는 70%, 보기와 행동할 때에는 90%가 기억에 남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Grasha, 1996). 이러한 사실은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식 체험학습, 예컨대, 그룹 토의나 심포지엄 등을 시행해서 학습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아울러 적절한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칠판쓰기이다. 칠판을 잘 이용하면 크게 네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첫

째는 말로는 충분히 묘사나 설명이 안 될 때 그림이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 효과, 둘째는 말하다가 요약해서 쓰거나 말한 글을 강조하는 액센트 효과, 셋째는 습관적으로 말을 빨리 하거나 강의 진도가 성급하게 나갈 때 판서를 하여 속도를 늦추고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브레이크 효과, 넷째는 전문인/학자의 필기 습관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 효과이다(조벽, 2001). 이 네 가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칠판에 무엇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칠판 이외에 OHP, 컴퓨터를 이용한 Power Point, 비디오, 슬라이드 등 시각적 효과가 높은 도구를 강의 중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할 때에 강의 보조용으로만 쓰는 게 좋다. 강의 내용이 모두 OHP에 적혀 있어 교수가 그 내용을 줄 줄이 내려가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OHP는 강의(말)를 보완하는 경우나 말로 표현이 어려운 내용을 보이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OHP를 사용 시에는 강의 진행 속도나 분량이 적절해야 한다. OHP는 쉽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량의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강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학생들의 수용 정도에 따라 비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다.

▶ 전략 7 : 강의 내용의 제시 방법을 효과적으로 하라.

강의내용의 제시방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념에는 Recency effect(최근 효과), Primary effect(초두효과), Vividness effect(현시성 효과), Question effect(질문효과)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박성익, 1997). 최근 효과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헤어지기 직전에 나누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를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 초두효과는 강의를 시작할 때에 이야기 한 것이나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은 강의의 가운데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현시성 효과를 이용하여 도표나 실제의 예, 흥미로운 내용,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혹은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질문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게 하기 보다는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강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질문 받는 순간에 긴장하게 되고, 뭔가 강의에 참여할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질문 시에는 폐쇄적인 질문, 즉 특정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개방적 질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 8 : 강의 목표와 부합되는 피드백과 평가를 부가하라.

교수가 강의 중간 중간에 강의 목표와 부합되는 피드백과 평가를 실시한다면 학습자는 학습 성취 결과를 생각하고 강의에 더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의자는 강의 말미에 요약정리를 해 주든지, 혹은 학생들에게 요약해 보도록 요청하도록 한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도록 하든지, 강의한 내용을 응용하는 시험을 치루든지 과제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학습자는 피드백을 받으면 강의의 효과는 증가한다.

▶전략 9: 강의 기교보다는 철저한 준비에 집중하라.

선천적으로 강의에 소질이 없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은 내용보다는 테크닉, 화려한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장식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강의기교보다는 강의 내용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하다. 풍부한 강의 내용은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교수의 강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쉽게 알게 된다. 1시간 강의를 위해 10시간 강의 준비를 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강의 자체에는 강의자의 정신과 혼이 스며들어야 된다.

특히 강의자가 강의 경험이 부족할수록 꾸준한 연습 없이는 강의에 성공할 수 없다. 성공적인 강의에 있어서 리허설은 매우 중요하다. 연습 강의 시에 캠코더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강의를 미리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략 10 : 개성 있는 강의 스타일을 개발하라.

지금까지 기술한 전략 1부터 9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강의자의 강의 기교나 마음가짐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자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강의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도 모범적인 절대적인 강의는 없다.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강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강의자는 우선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강의는 좋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그렇다고 모방에서 그치면 안 된다. 자신만의 강의 스타일, 즉 포스트 모더니즘적 강의 스타일을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강의가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강의자의 사고 관념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강의, 개성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특성과 성향, 강의자가 갖는 장점, 주어진 시간, 장소에 따라서 강의는 변신해야 한다. 강의는 이미 필자가 종합적인 공연예술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독특한 스타일로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강의는 강의자만이 갖고 있는 예술성과 개성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V. 효과적인 대학 수업운영 모형 예시

1. 대학 강의 운영 유형

대학 강의는 대체적으로 강의식, 토의식, 그리고 탐구식으로 구분

이 된다. <표 1>의 강의식 수업의 장단점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의식은 체계적으로 단 시간 내에 강의자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하향적인 강의가 되기 쉽다는 점이 특성이다.

<표 1> 강의식 수업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1. 단시간에 다양한 지식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음 2. 교과내용의 보충, 가감, 삭제가 용이함 3. 학습자의 감정자극 동기화 용이 4. 수업자의 의사대로 학습환경 변경이 용이함 5. 수업시간, 학습량 등을 수업자의 의지대로 조절 용이	1. 교과성 읽기에 치우칠 우려가 큼 2.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이 무시되기 쉬움 3. 추상적인 개념 전달로 학습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요점파악이 곤란 4. 학습자의 동기가 지속되기 어려움 5. 학습자의 개별화가 어려움

토의식 수업은 주로 원탁회의(round table discussion), 배심토의(panel), 공개토의(forum), 단상토의(symposium), 대담토의(colloquy), 세미나(seminar), 버즈토의(buzz discussion)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토의식 수업은<표 2>에서 보는 대로 학습자의 창의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면에 비효율적인 면도 내재하고 있다.

<표 2> 토의식 수업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1. 사회적 기능 및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 2. 집단 의식과 공유능력을 향상시킨다. 3. 선입견과 편견은 집단구성원의 비판적 탐색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4.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토의의 허용적 특성은 학습자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 4. 알려지지 않거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실과 개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토의하기 어렵다.

탐구학습은 집단탐구수업이나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집단탐구수업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 단계 1: 상황의 제시와 탐구문제 설정
- 단계 2: 탐구활동의 계획 수립
- 단계 3: 탐구활동의 전개
- 단계 4: 탐구활동 결과의 정리 및 발표

2. 효과적인 대학 강의 운영 모형 예시

▶ 예시 1) 강의식 + 발표 수업 + 토의식

- a. 첫 강좌 - 강의 요지 설명 후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까지 교과목 관련 관심 주제(3 내지 4가지) 선정해 오도록 함
- b. 학생들의 관심을 취합하여 한 학기간의 토론 주제(10가지 정도) 확정
- c. 관심영역별 (학과 고려) 소집단 구성
- d. 한 학기 토론 진행계획과 일정 및 각 조원 공고
- e. 3 내지 4주 강의 후부터 1조씩 발표 및 토론 진행 (단, 전 주에는 다음 주에 발표할 주제를 알리고, 발표조가 아닐지라도 토론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함)
- f. 먼저 약 40분 정도의 교수 강의(진도 및 내용에 따라 시간 가감)가 있는 후, 이어서 각 조별로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난 후 발표 내용에 관해 소집단 토론 진행
- g. 소집단 토론 후에 발표자 주도 하에 소집단 토론을 거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

h. 각 단계마다 교수 개입

▶ 예시2) 강의법 + 발표수업 + 사이버 강의

a. 첫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강의 요지 설명 후 교과목과 관련하여 미리 준비된 원서 자료 배부(분량에 따라 1명 혹은 2-3명씩 팀 구성함)

b. 영어 원서 내용은 교과목 관련 내용인 동시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선택

c. 영어 원서 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료 수집하도록 하여 인터넷 자료 검색 연습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도

d. 담당교수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에 사이버 강의실을 통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예시3)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교수법

a. E-mail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학생간 의사소통

b. 사이버 게시판을 이용하여 교수-학생, 학생-학생간의 의사소통

c. 사이버 자료실에 교수자료 및 학습보조자료를 첨부하여 강의 지원

d. 문제를 중심으로 팀별 활동을 진행하며 사이버 게시판 및 자료실을 통하여 팀원 상호간에 활발한 의견의 교류

▶ 예시4) 수업자체평가서 활용 교수법

a. 학기 초에 수업 자체 평가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기 말에 동일한 양식으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주지

b. 학기말에 수업 자체 평가서를 학생에게 배분하여 평가 실시

수업 자체평가서(예)

평가일: 년 월 일

한 학기동안 열심히 수업에 임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 여러분은 본 수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열심히 수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임하였으며, 또한 얼마나 공헌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자신을 객관화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과목명:
2. 소속: 학부 _____ 학과 _____ 학번 _____
 학년 _____ 성명 _____

3. 자신의 수업 준비도와 수업에서의 공헌한 내용을 상세히 모두 기록할 것 (예: 복습 및 예습의 정도, 전체 및 그룹 토론시 발언 회수와 내용의 영향력, presentation, 효과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 등 기타 모든 사항...) : 지면이 부족하면 뒷면에 계속 기록하십시오:

4. 자신의 평가결과를 점수화한다면? 총 () 점

<참고>

각각의 평가기준 x 최상(5점) 상(4점) 중(3점) 하(2점) 최하(1점) = 총점

- 1) 예습 및 복습의 정도
- 2) 토론 참여 회수 및 발언의 영향력
- 3) 개인발표 회수 및 발표의 영향력
- 4) 효과적인 수업분위기 조성
- 5) 기타 수업을 위한 공헌도

5. 마지막으로 부가하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예시5) 팀 프로젝트 운영 교수법

- a.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물을 팀별로 구성하여 부과
- b. 과제 부과 시에 지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숙지
- c. 과제 제출 후에 팀별 발표 시행

TEAM PROJECT GUIDELINE (예)

1. 구성
 - 인원: 3 내지 4인
 - 기준: 가능하면 혼성, 연령별로 다양하게
2. 구성원의 역할
 - 연락 및 팀 모임 주선; 전체 및 개인별 상세한 활동보고서 작성(팀장)
 - 자료 조사 및 수집(팀원 전원)
 - 원고 집필(팀원 전원)
 - 원고 수정 및 가필 (팀원 1내지 2명)
3. 제출물
 - 1) 팀 활동 보고서
 - 2) project 원고 디스켓(사전에 바이러스 체크 요함) 및 출력본 1부
 - 길이: A4 용지 10-15쪽 정도
 - 형식: 줄간격 180, 글씨 크기 신명조 11, 여백 15, 15, 36, 36, 15, 15
 - 각주 및 참고문헌: APA style 에 따름 (수업시간 중 유인물과 함께 소개할 예정)
 - 3) 성적 기준
 - 팀 활동 보고서(33%): 팀 활동의 적절성, 일의 공평한 분배성
 - 형식(33%):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다양성,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맞춤법 및 띄어쓰기, 문장 구성력, 표절성 여부
 - 내용(33%): 독창성, 논리성, 정보성
 - 기타: 원고 내용이나 방법에 따른 활동 난이도, 특성화 및 차별성 (10% 가산)
4. 제출 마감
 - 일자 : 2001년 5월 30일 (월) 수업시간 기일 엄수는 필수!
 - 장소 : 강의실 및 담당교수 연구실 ☎
5. Help!
 - Project 활동시에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담당교수에게 도움을 청할 것.

VI. 결 론

이 글에서는 효과적인 대학 강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필자의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험론적인 기술 양식은 교수 방법론에 대한 필자의 전문적인 교육학적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강의자를 중심 역할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의의 질이 제고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였다. 강의의 6요소인 강의자, 학습자, 강의시간, 강의 장소, 강의내용, 강의방법 중 강의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다. 그것은 강의의 효과성은 강의자의 자질과 강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강의는 종합공연예술의 성격을 띤다.

강의자는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10가지 전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강의자는 자신감을 갖고 강의를 재미있게 구성하라. 둘째, 강의를 쉽고 명쾌하게 하라. 셋째, 강의를 적극적으로 고도 변화 있게 진행하라. 넷째,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라. 다섯째, 강의자와 학습자와는 상호 인격적 대화가 되도록 하라. 여섯째,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라. 일곱째, 강의 내용의 제시 방법을 효과적으로 하라. 여덟째, 강의 목표와 부합되는 피드백과 평가를 부가하라. 아홉째, 강의 기교보다는 철저한 준비에 집중하라. 열번째, 개성 있는 강의 스타일을 개발하라. 마지막으로 대학 강의는 강의식, 토의식, 탐구식 등 여러 가지 강의 유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강의자인 교수의 창조적인 모방과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정환(1992).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 vol. 59.
- 김호권(1984). 수업개선을 위한 종합적 고찰. 대학교육. vol. 9.
- 박성익(1997).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변영계, 김영환(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이성호(2000). 교수방법의 탐구. 양서원.
- 조 벽(2001). 새시대 교수법. 서울: 한단북스.
- 최은수(2003). 효과적인 강의 교수법. 관세공무원 교육원 특강자료.
- 홍성유, 김유미 역(1996). 대학의 수업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교육과학사.
- Mehrabian, A.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New York: Aldine-Atherton.
- Grasha, A. F. (1995-1996). Teaching with style: Integr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in the classroom. Teaching Excellence: Toward the Best in the Academy, 7 (5), 1-3.
- Kember, D. (1997)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research into university academics/ conception of teaching. Learning and Instruction, 7(3), 255-275.
- Lefrancois, G. (1991). Psychology for teach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Teeters, J. (2001). Teach With Style: A Comprehensive Systems for Teaching Adults. St. Paul: Redleaf Press.
- Malout, D. (1994). How to Teach Adults in a Fun and Exicting Waychatswood, Austrailia: Business and Professional Publishing.
- Shoemaker, C. (1998). leadership in continuing and Distance Educ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West, C. K., Farmer, J. A., Wolff, P. M. (1991). Instructional design: Impkication rom cognitive science.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Abstract】

Principle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Models of Class Manage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Lectures in Korean Higher Education

Choi, Eun-Soo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some principle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models of class manage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lecture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wa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the experiential description of the Author himself. Assuming that an instructor is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six factors to determine the level of lecture, ten principle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were suggested for an instructor preparing for a lecture: 1) Be convinced of yourself as a best instructor and organize the lecture to become attractive; 2) Make the lecture easy and clear to understand; 3) Implement the lecture in positive and various ways; 4) Show enough concern and interest about your learners; 5) Have a deep interpersonal and equal conversation with learners; 6) Make use of every educational instrument for teaching; 7) Be effective in proposing the lecture content; 8) Provide learners with appropriate feedback and evaluation suited for the goal of lecture; 9) Set the higher priority on the preparation for the lecture rather than lecture skills; and 10) Develop your own style for the lecture. Finally, the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of mixing several types for the lectures to attain goals of the lecture.

key words: Effective teaching, Quality of lecture, Lecture content, Feedback, Evaluation, Interpersonal conversation.